

생생리포트

■ 자치구탐방

■ 기업환경개선을 위한

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

최동욱(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)

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활성화 방안

최동욱

구로구청 기획경제국장

1256du@guro.go.kr

I. 공단에서 첨단으로

1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요
2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성 및 변천사

II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선방향

1. 산업의 변화 및 특성
2. 문제점
3. 개선방안

III. 결론 및 시사점

I. 공단에서 첨단으로

1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요

-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시의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 1960년대 수출진흥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“수출산업단지개발조성법”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었음
-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서울 서남부인 구로구 구로동(1단지) 및 금천구 가산동(2, 3단지)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, 지하철 2호선(대림역, 구로디지털단지역), 지하철 7호선(대림역, 남구로역, 가산디지털단지역) 및 1호선(가산디지털단지역) 등 3개 노선과 2개 환승역(대림역, 가산디지털단지역)이 입지해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함
- 또한 시흥대로, 남부순환로,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간선도로가 단지 내외곽과 연결되어 있어 서울 도심 뿐 아니라 인천, 수원, 경기지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음
- 1964년 1단지 지정을 시작으로, 3개 단지 총 1,981,552㎡(약60만평) 면적에 약 1만여 개의 업종이 입지해 있으며, 지식경제부가 지정한 산업단지 관리권자인 한국산업단지 공단은 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” 제33조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, 각 단지를 관리하고 있음

<표 1>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단지별 면적

구 분	계(㎡)	산업시설용지(㎡)	지원시설용지(㎡)	공공시설용지(㎡)
1단지	452,647	349,010	66,608	37,029
2단지	395,777	248,031	52,975	94,771
3단지	1,133,128	867,370	62,502	203,256
총 계	1,981,552 (100.0%)	1,464,411 (73.9%)	182,085 (9.2%)	335,056 (16.9%)

자료 :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-122호, 2010. 6.15

2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조성 및 변천사

- 1960년 ~ 1980년대 중반

- 수출진흥을 기치로 내건 국내 최초의 공업단지로 출범
- 1964년 ‘수출종합단지개발조성법’을 제정한 후 현 구로3동 지역에 43만㎡의 1단지를 준공(1967년)하고 이후 198만㎡으로 확장 (1973년)
- 섬유·봉제, 가발, 전기 등 경공업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수출을 견인
- 1970년대 중반 이후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 속에서도 구로공단은 국가 수출의 10%를 점유
- 1970년대 후반 이후 구로공단의 주력품목이 점차 변화
- 1985년에는 전기·전자분야가 공단 수출 1위 업종으로 부상하고, 섬유·봉제는 2위로 하락
- 1980년대 중반 ~ 1990년대
 - 1980년대 중반 이후 구로단지 내 기업환경이 크게 악화되면서 공단의 구조조정 필요성 대두
 - 노사갈등에 따른 임금상승과 더불어 3D 업종 기피현상이 확산되고,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제조업 공동화 및 슬럼화가 진행
 - 구로공단이 활력을 잃으면서 수출은 1988년 42억 달러에서 1987년 7만 3천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
 - 정부는 구로공단의 회생을 위해 1997년 ‘구로단지 첨단화 계획’ 수립
- 2000년 이후 ~ 현재
 - 단지 명칭을 개칭하는 등 구로단지의 이미지 제고하고, 기업의 인큐베이터 기능 본격화
 - 2000년에 구로공단의 명칭을 ‘서울디지털산업단지’로, 한국산업단지공단은 ‘키콕스벤처센터’를 구로단지에 준공
 - 2002년 이후 테헤란밸리를 비롯한 서울 시내에 산재해 있던 중소·벤처기업이 구로단지로 대이동
 - 2006년에 한국벤처기업협회가 테헤란밸리에서 구로로 이전
 - 2011.11월 현재 입주기업체수 11,469개, 고용인원 154,552명

II.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개선방향

1. 산업의 변화 및 특성

- 1967년부터 현재까지 산업단지 내 입주한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과거 국가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섬유·의복, 석유화학 등의 제조업은 감소하고, R&D 등 첨단기술업종으로 변화되었음
- 행정구역 상 구로구에 속한 1단지 내 산업의 변화 및 특성을 살펴보면, 2012년 현재 1단지 내 고용인구는 51,259명, 입주업체는 총 4,427개소이며, 입주업체 총수 중 58.5%가 R&D 및 시제품 생산산업, 첨단기술산업, 지식산업 등의 IT비제조업체임
- 1단지에 입주한 제조업종은 1,295개이며, 한국산업분류표에 의거 이중 74%가 첨단업종으로 1단지 첨단화율은 81%임

2. 문제점

- 도시관리계획 부재로 인해 물리적 환경 개선 등 계획적 관리 불가
 - 도시관리계획의 부재로 인해 「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별 건축물 위주로 재정비가 추진되어 왔으며, 기반시설 정비 등 큰 틀에서의 계획적 관리가 불가능했음
 - 도로와 보도 등 산업단지 초기에 형성된 도로골격은 건축물의 정비가 어느정도 완료된 현 시점에서 근본적인 개선이 불가능한 실정임
 - 구로구는 법정계획이 아닌 행정계획으로 2012년 「디자인 가이드라인」(구로구)을 수립하여 건축물 인허가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하였으나, 기업이 필요로 하는 환경을 조성하고, 종사자가 요구하는 시설을 충족시키기에 물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
- 한정된 공간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추진 필요
 - 현재와 같이 산업단지의 물리적인 환경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“첨단산업단지”라는 변화된 산업단지 이미지의 지속적인 쇄신을 위해, 지식산업센터 전면부에 조성된 공개공지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재정

비 추진이 필요함

- 공개공지 구간을 활용하여 단절된 보도를 연결하고, 연속적인 보행공간의 재정비를 통해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기반시설(보도)의 개선 및 문화·휴게 공간으로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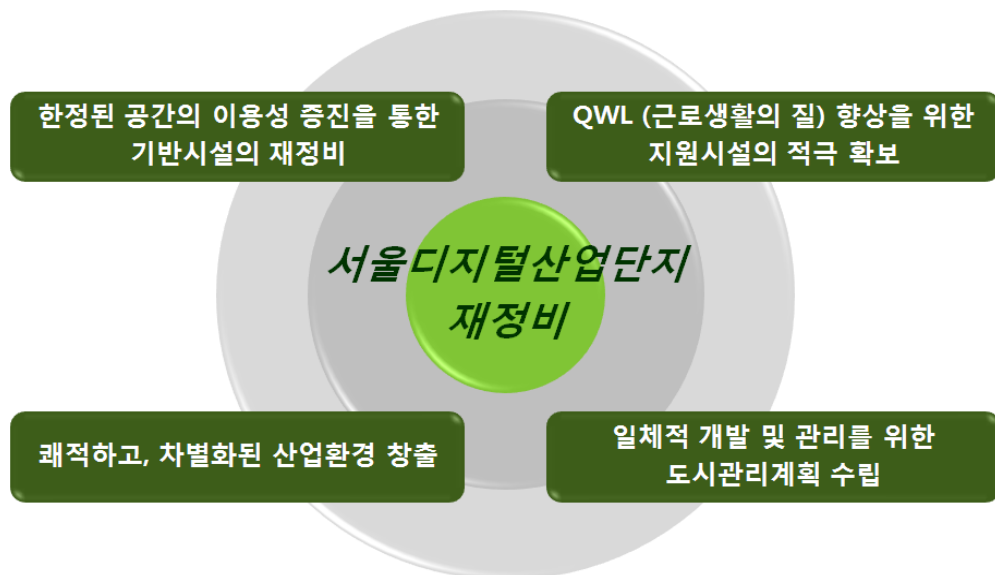
○ 종사자의 의식수준 증대에 따른 쾌적한 근무환경 및 문화인프라 조성 시급

- 첨단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이 재편되면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의식수준도 높아졌으며, 고급 연구인력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의 우선정비 및 복합토지이용을 통한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, 문화축제 개최 등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문화인프라 조성이 시급함

○ 지원시설 부지를 활용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설 우선 공급

- 2012.11월 관리소장, 기업대표 및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중 개별 지식산업센터에서 설치하기 어려운 대규모 회의공간 및 연구시설 등 기업 간 자유로운 정보 및 인력교류가 가능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시설 부지(정수장 등) 개발 시 적극 수용 및 우선 공급 추진이 필요함

3. 개선방안



[그림 1]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재정비 계획방향

○ 한정된 공간의 이용성 증진을 통한 기반시설의 재정비

- 80억 규모의 도시활력증진사업(2013~2016)을 통해 단계별로 보행공간 정비를 실시하고, 보도가 없는 일부구간은 임시적으로 U형 블라드를 설치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토록 조정
- 신규 건축 시 법정주차대수 이상 주차공간 확보 및 지원시설부지 개발 및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
- 14만명이 근무하는 산업단지내 휴식을 위한 공원시설이 전무하며,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녹지구역이 없어 공원시설의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나 1,2,3단지 중심의 유일한 유희 공간인 정수장 부지 녹지공간 조성 및 문화체육 시설 확보토록 적극적인 정부 건의

○ QWL(근로생활의 질)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보

- 영·유아 보육시설 건축물 신축시 조건 부여, 기존 건축물은 보육시설로 용도변경 권유
- 공개공지 조성 시에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개방형 공개공지로 조성
- 디지털산업단지 고용자 특성 고려한 소형·저렴한 기숙사 등 주거공간 공급
-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부지에 기숙사 등의 건축이 가능하나, 분양 및 임대가능여부 등에 대하여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근거 마련이 필요



[그림 2]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지원시설 확보

○ 쾌적하고 차별화된 산업환경 창출

- 산업단지 만의 특별한 장소적 아이덴티티 부재로 거리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도입 추진
- 평일야간 및 주말에 산업단지 공동화문제를 해결하고 24시간 활력있는 산업환경을 창출하기 위해 확보된 공개공지를 활용하여 축제, 공연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개최
- 산업단지 내 근로자 뿐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정례화된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필요
-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정기적, 유동적으로 개최



[그림 3] 지역주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거리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

○ 입체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시개발계획 수립

- 인근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시행 시 확보시설 : 산업단지에서 수용이 불가능한 시설의 경우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 및 구로디지털단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시 건설토록 조치
- 가리봉재정비촉진지구의 도시재정비 사업을 통해 산업단지 인근에 양호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교육·문화·생활지원시설의 질을 향상시켜 직주근접 실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-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재정비에 따라 중심지체계가 지역중심에서 광역연계거점으로 조정됨에 따라 구로디지털단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 시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

- 여가위락시설 등 복합 개발 유도를 통해 서남권의 중심지로의 위상 제고
- 향후 동일산자 일원 특별계획구역의 개발 시 이 지역에 필요한 복합시설을 설치하고 지상철이 지나는 구로디지털단지역사와 1단지를 직접 연결하는 입체보행연결통로를 설치하여 보행연계성 강화



[그림 4]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문화 · 여가 · 위락시설 구상

III. 결론 및 시사점

1.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마련

-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창출을 통해 지속 가능한 클러스터로 업그레이드
 - 디지털산업단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, 단지 내 기업이 多産多死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재창출하기에는 역부족
 - 디지털산업단지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간 네트워크 활성화, 산학연 연계로 혁신동력 창출 및 지역 · 기업간 상호협력과 신뢰 형성 등을 통해 혁신 시너지를 제고
 - 혁신 시너지가 제고되면 클러스터가 기업의 단순한 경유지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창업, 성장, 스피노프 등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
 - 단지 내에서 생산된 제품 및 서비스가 자체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시장을 형성하여 시장정보가 기업체에 즉각 환류되는 체계를 구축
- 지식과 기술의 창조를 위한 유연한 클러스터 환경조성이 도약의 관건
 - 교류 · 협력을 활성화하여 혁신 아이디어의 場을 마련

- 벤처기업협회와 산업단지공단, 커뮤니티 서비스 기업들이 연계하여 포럼이나 컨벤션, 공동 교육훈련 등 단지 내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

2. ‘일터’에서 ‘삶터’로 공간 고도화

- 디지털산업단지 배후지인 ‘가리봉 균형개발촉진지구’를 복합형 부도심개발
- 기획과 R&D, 생산과 유통 등 분리되어 있는 가치사슬을 통합하여 '상호작용적 혁신'을 촉진
- 제조, 판매, 유통과의 수평 계열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형성
- 의류·패션 위주의 단지 내 판매유통시설을 디지털산업단지의 주력 품목인 전기전자, PC, 소프트웨어, 메카트로닉스 등으로 확대해 시장과의 접근성을 강화
- 녹지 및 문화체육시설, 여가시설 확충 및 문화프로그램 개발로 매력도 향상 마련